

#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모두 군산안착 본격적인 가동체계 준비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형일자리가 새로운 도약을 넘어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시는 17일 군산형 일자리 총괄 브리핑을 통해 참여기업인 (주)명신의 해외위탁생산 계약과 향후 로드맵을 밝히는 등 군산형일자리 추진사항 전반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형일자리가 새로운 도약을 넘어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2022년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이정표를 향해 본격적인 실행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명신은 지난 4월 미국 패러데이퓨처(이하 FF사)와 전기차 위탁생산 본계약을 체결해 23년 하반기부터 FF81 SUV 모델을 연간 8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20일에는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이집트 국영기업과 12인승 전기 마이크로버스 연 2천대, 국산 이동수단인 삼륜차 E-북북 연10만대 수준의 전기차 공급 및 기술지원 LO(투자항시)를 체결해 수출물량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올해부터 연말까지 FF사의 FF91 차량(FF81의 고급형)에 대한 2,000~4,000대 분량의 차체 부품 납품이 예정돼 있으며, 이집트 국영기업과 4월 본계약 후 10월에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마이크로버스 시승차량을 제공하고, E-북북 수출공급까지 예정되어 있어 군산공장이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이번 계약으로 생산라인 설비투자 진행과 400여명 규모의 생산인력 채용 등 본격적인 안착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국내 부품 60%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 부품사와 협력할 기회 또한 많아졌다.

특히 군산형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정(21.02.25.) 후 1년의 기간동안 참여기업 모두 군산에 안착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전기중형 버스에 이어 1톤 EV트럭 양산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 인도네시아 공장버서용 배어사시(115대/년) 및 인도에서 생산할 전기버스 부품(350대/년) 수출 물량도 진행할 예정으로, 추가 차체공장을 올해 마무리해 전기상용차 종합제조 회사로 발돋움 할 계획 이다.

또한 코스텍은 오는 3월경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착공해 하반기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참여기업과 부품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창모터스 군산공장은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군산공장에서는 주력 개발상품인 다니고(카고모델)와 배터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등 본격적인 안착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국내 부품 60%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 부품사와 협력할 기회 또한 많아졌다.

특히 군산형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정(21.02.25.) 후 1년의 기간동안 참여기업 모두 군산에 안착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전기중형 버스에 이어 1톤 EV트럭 양산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 인도네시아 공장버서용 배어사시(115대/년) 및 인도에서 생산할 전기버스 부품(350대/년) 수출 물량도 진행할 예정으로, 추가 차체공장을 올해 마무리해 전기상용차 종합제조 회사로 발돋움 할 계획 이다.

또한 코스텍은 오는 3월경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착공해 하반기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참여기업과 부품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창모터스 군산공장은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군산공장에서는 주력 개발상품인 다니고(카고모델)와 배터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코로나 위기 속 익산 경제 성과 빛났다

다이어وم 발행 · 건축 인허가 등 각종 경제 정책... 위기 극복 핵심 역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익산시의 다양한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 익산다이어움과 주거 정책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민생 경제 안정화에 특목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는 익산다이어움이 지역 소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이어움 지역경제 효과분석 용역 결과 익산시 월별 소비액은 2019년 12월 537억6,000만원 대비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440억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상반기 다이어움 도입 시점부터 추진한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전시민 1인당 10만원 + 다이어움 혜택)으로 월별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9월 678억원까지 늘었다.

소비액 678억원 중 지역 내 423억원(62.4%), 지역 외 194억원(28.6%), 온라인 61억원(9.0%)으로 지역 내 소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골목상권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움이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타지역 상권으로 유출되었을 금액이 다이어움으로 인해 지역에서 소비되었음을 의미하는 '역내 소비 전환효과'도 다이어움 판매액의 33.4%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이어움은 외부소비지출 억제효과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고,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2020.1. ~ 2021.9월까지 다이어움 재정 투입액 576억원, 경제적 효과분액 2,123억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에도 지역 내 상권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축 인허가 ·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면서 건설경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축 인허가 · 사업 승인 건수는 각각 645건, 13건으로 2020년 608건, 5건보다 7% 증가했다.

건축 인허가 · 사업승인 후 실제 착공 면적도 크게 늘었다. 2020년 말 기준 61만4557㎡에 불과했던 총 착공 면적은 지난해 말 155만7831㎡로 전년 대비 153%나 증가했다.

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 공원과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순차적으로 착공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 된다.

지난해 말 마동공원과 공공주택 1,431세대 23만9,031㎡와 수도산공원 1,556세대 23만9031㎡가 각각 착공한 데 이어 올해 소라공원 공공주택간담 임대주택 공급축진지구 1,357세대 20만8898㎡, 모인공원 834세대 15만3,145㎡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3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류접수~면접 원스톱 지원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3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는 군산미래산업 특화기업 및 로컬푸드 관련기업 34개사가 참여하며,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홍보와 구직자발굴,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는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짧은 인력을 원하는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약 15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에게는 사업기간 동안

안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급 등 지역 정착 지원과 맞춤형 직무교육 및 자기개발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이 이뤄져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물론 직무 및 취업역량까지 갖추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는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위한 가림막 설치, 대기 좌석 및 시간 지정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면접부스 뿐만 아니라 취업컨설팅 및 취업 지원사업 안내 부스를 동시 운영해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사 지원서류 사전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 통

군산시보건소 '존엄사'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군산시보건소는 말기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제정되며 생긴 제도다.

보건소는 지난 2019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70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를 양성하고 현재까지 3310명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과 등록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2차 재난기본소득 온·오프라인 신청

익산시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21일부터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올해 1월 20일 0시 기준 익산에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다음달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 다이어움 카드 가입 시점에 한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개인이 보유한 다이어움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프라인은 세대주가 세대원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무기명 선불카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 익산시, 국립 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유치 '총력'

익산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시설인 국립 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7일 익산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와 8개 실무분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 유치를 위한 청소년 의제 발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 유치 관련 추진 경과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발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회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정서·행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

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거주형 국립 치료·재활시설이다.

정서 행동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통합적인 전문 치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립청소년상담센터는 수도권(경기도 용인)과 경상권(대구) 2 곳에 불과해 호남권 청소년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설득과 정책 제안, 정치권 및 산·학·연과의 업무 협의를 추진해왔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